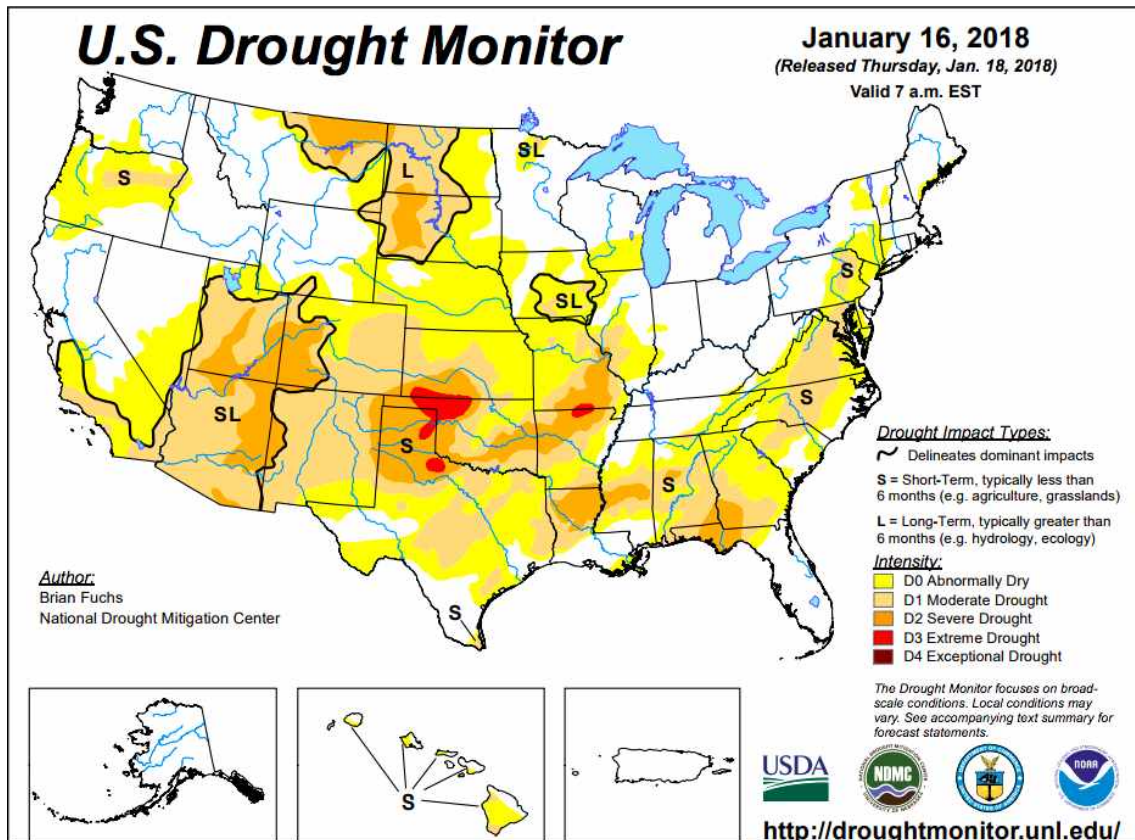


1월 2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4)

□ 미국 기후 현황(1/14~1/20)

남동부 일대에서는 또 한 차례 한파가 몰아닥쳤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에서는 지난 1월 17일과 18일에 강추위가 찾아왔고, 기온도 평년에 비해 5~15°F 이상 낮았다. 플로리다에서는 ice cap을 이용해서 딸기, 귤 등의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고, 루이지애나에서는 사탕수수의 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날씨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한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지난 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중서부와 북동부에서도 눈이 내렸다. 서부와 중부 북부 지역 등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다. 서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서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캘리포니아와 로키산맥 중부와 남부 등의 고원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설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기도 했다.



## □ 농업 현황 요약(1/15~1/21)

남동부 곳곳에서는 강추위가 찾아왔다. 텍사스에서부터 Delta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F 이상 낮았다. 플로리다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스콘신, 미네소타, 로키산맥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9°F 이상 높았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북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1/14~1/20)

■ 유럽: 북동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고, 남부의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맑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 독일 남부에서부터 동부, 폴란드 등에서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려 겨울밀 등을 강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영국 북부에서는 곳에 따라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프랑스, 영국 남동부, 독일 서부 등에서는 10~8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4°C 정도 높았다.

■ 구소련(서부):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주 초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선선한 날씨를 유지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에서 40°C 초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호주 남동부에서는 맑은 날씨 아래 수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겨울작물 수확작업은 대부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호주에서는 10~50mm 내외의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겨울작물 수확작업이 재개되면서 작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 아르헨티나: San Lius 동부에서부터 Cordoba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2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에서는 지난 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해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북부 일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8일 기준 옥수수 파종률은 85%를 기록했고, 대두의 파종률은 95%를 기록했으며, 밀의 수확률은 99%를 기록했다.

■ 브라질: 남부의 Mato Grosso do Sul, Minas Gerais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에서도 지난 몇 주간 이어졌던 가뭄을 해소해 주는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1월 18일 기준 대두 재배지의 40%에서 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5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 재배지의 약 90%가 filling stage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Mato Grosso 서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동부의



Tocantins와 인근 지역에서도 비가 조금 내렸다. Mato Grosso에서는 1월 19일 기준 대두의 수확률이 3%를 기록했고, 옥수수 파종작업이 시작되었다.